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 소 영

신 희 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Deci와 Ryan(2000, 2002a, 2002b)의 자기결정이론에 바탕을 두고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BPN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를 개발하고 이러한 심리적 욕구 만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소영과 신희천(2006)의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20문항을 수정하여 예비문항을 제작한 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 척도를 실시하였다.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통해 18문항이 확정되었으며, 연구자의 가설과 같이 척도가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3요인 구조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척도의 타당화 검증을 위해 애착척도(IPPA-R), 자기효능감척도(SES)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절한 공준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과 정적 정서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만족의 설명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정서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만족의 설명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욕구 만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적 보편성·차이점, 그리고 이론적·치료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기본 심리적 욕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부모-자녀 관계, 주관적 안녕감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Tel : 031-219-2747, E-mail : hcshin@ajou.ac.kr

약 40여 년 전, Deci가 인간의 내적 동기에 대한 실험 논문을 출판한 이후(Deci, 1971; Deci & Ryan, 2002b에서 재인용),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인본주의 심리학, 정신 분석학, 발달 이론에서 보이는 견해 차이를 통합하는 상위 이론으로 발전해왔다(Deci & Ryan, 2002a). 자기결정이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상위 이론적 조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인간은 본래적으로 순향적(proactive)인 존재로, 자신의 내적 힘인 추동과 정서를 비롯, 환경과 같은 외적인 힘을 작동시키고 숙련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인간은 자기-조직적 체계로서 성장, 발달, 통합적 기능을 향한 본래적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력과 최적발달이 인간 유기체에 본래적이기는 하나, 이는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발달하려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혼란스럽고, 통제적이고, 거부적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지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인간의 활동성과 발달에 그 만큼 악영향이 초래 된다는 주장이다(Deci & Vansteenkiste, 2004).

사회적 맥락이 인간의 효과적이고 건강한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은 자기결정이론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다(Deci & Ryan, 2000, 2002a).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을 최적으로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심리적 영양소인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세 가지 욕구는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다. 자율성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Deci & Ryan, 2000), 통합된 자기감, 즉 자신의 진정한 관심과 가치관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자율성은 타인과의 분리를 강조하는 독립성(independence)과는 달리 행동에 있어 자기 의지와 선택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Deci & Vansteenkiste, 2004) 부모의 지지와 안내에 기꺼이 의존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Soenens, Vansteenkiste, Lens, Luyckx, Goossens, Beyers, & Ryan, 2007). 유능성은 사회적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인 것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실행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는 습득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행동에서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Deci & Ryan, 2002a). 관계성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타인을 돌보고 돌봄받는 느낌을 일컫는다(Ryan, 1995). 여기서 타인과 공존하고 수용 받는다는 느낌은 어떤 특정 결과를 얻는 것과 무관하게 안전한 친교관계나 화합 안에서 타인과 함께한다는 심리적인 느낌과 관련되는 것이다(Deci & Ryan, 2002a).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 세 가지 욕구가 만족된 사람은 건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욕구는 어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모두 고르게 충족되어야 하며(Sheldon & Niemiec, 2006), 욕구를 방해받거나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인간 성장과 안녕감에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인지 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Deci & Ryan, 2000, 2002a).

다양한 연구에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안녕감에 중요하다는 자기결정이론의 주장이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직장 장면과 관련되어서는 수행결과와 안녕감(Baard, Deci, & Ryan, 2004; Vansteenkiste, Neyrinck, Niemiec,

Soenens, De Witte, & Van den Broeck, 2007)이나 직장 내 만족감(Iardi, Leone, Kasser, & Ryan, 1993)이 기본 심리적 욕구와 관련된다는 연구나, 직장 내 자율성 지향이 수행결과와 만족감을 예측한다는 연구(Lam & Gurland, 2008) 등이 있다. 교육장면 연구에서는 법대생을 대상으로 3년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살펴본 결과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자율성 지지를 크게 지각한 법대생의 경우 욕구 만족 정도의 감소량이 작았고, 이에 따라 안녕감, 시험 결과, 직장에서의 동기 수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Sheldon & Krieger, 2007). 그 밖에 다른 연구에서도 기본적 욕구 만족 정도가 교수 수업 평가를 예측(Filak & Sheldon, 2003)하거나 체육선수가 지각하는 부모와 코치로부터의 욕구 만족이 선수들의 안녕감을 예측(Gagne, Ryan, & Bargmann, 2003)하는 등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모로 판단되는 피상적인 패션업계의 분위기로 인해 전문 패션모델의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안녕감과 적응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Meyer, Enstrom, Harstveit, Bowles, & Beevers, 2007),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유능감과 자율성의 수준이 게임에 대한 즐거움, 선호도 및 게임전후의 안녕감과 관련된다는 연구(Ryan & Przybylski, 2006), 하루 동안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변화가 안녕감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Sheldon, Ryan, & Reis, 1996)등 기타 여러 영역들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욕구의 만족과 안녕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은 문화에 따라 만족의 방법이나 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문화보편적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Chirkov, Ryan, & Willness, 2005; Deci, Ryan, Gagné, Leone, Usunov, & Kornazheva, 2001; Ryan, La Guardia, Solky-Butzel, Chirkov, & Kim, 2005; Sheldon, Elliot, Kim, & Kasser, 2001; Vansteenkiste, Lens, Soenens, & Luyckx, 2006).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결정이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보편성이 지지되고 있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지명환, 김덕진, 2006)나, 대학 교양체육 수강생(김덕진, 양명환, 2006), 고등학교 농구 체육특기자(지민준, 김건우, 2007)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나, 또한 대학생의 진로(김은영, 2007)나 중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연구(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에서의 결과는 모두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안녕감이나 행동의 지속 의도, 진로미결정, 학업성취도 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환경적 맥락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 정도가 인간의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사회적 맥락인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욕구 만족이 개인의 안녕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Ryan(2005)은 자율성을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며, 자기 평가나 행동이 거짓되고, 왜곡되고, 가짜가 아닌 진실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율성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주변 환경, 즉 1차 양육자에 의해 자율성이 양육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그는 양육자가 자율성을 지지하려면 첫째, 양육자가 유아의 시각을 공유하고, 둘째, 유아의 시각과 그에 따른 느낌을 반영 및 존중하며, 셋째, 유아의 내적 인과성(internal causality)을 촉진시키거나 행동을 스스로 시작하도록 돕고, 선택권과 주인의식을 최대한 보장해야 해야 한다고 보았

다. 이러한 자율성 지지 개념은 결국 자율성 뿐만 아니라 관계성과 유능성 욕구의 만족과도 연결된다. Ryan(2005)은 자율성의 지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안녕감이나 정신건강에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병리에 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atelle, Larose, Guay과 Senecal(2005)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학업수행에서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 영향을 주어 과학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Ryan(2005)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부모, 교사, 친구 등 친밀한 대상의 자율성 지지와 이에 따른 학생의 심리적 욕구 만족은 학업 수행 뿐 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기능(Soenens 등, 2007), 학업에 대한 동기 와 안녕감(Chirkov & Ryan, 2001), 자율적인 자기 조절과 안녕감과 불행감(Niemiec, Lynch, Vansteenkiste, Bernstein, Deci, & Ryan, 2006)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atelle 등(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La Guardia, Ryan, Couchman과 Deci (2000)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세 가지 욕구를 애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민감한 양육자나 배우자는 자녀 또는 상대방의 욕구, 신호, 행동시작에 시기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며, 이러한 반응은 결국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만든다. 애착에서 민감성, 반응성이라는 개념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 세 가지 선천적 심리적 욕구와 관련된다. 즉 민감한 파트너 혹은 양육자란 상대방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만족하는 경험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Ryan(2005) 또한 기본 심리적 욕구와 애착을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자

란 자녀에게 민감하며 자녀에게 관여(involve ment)와 구조(structure)를 제공하는데, 관여하는 부모(involved parent)는 자녀에게 접근성, 노력, 관심과 구체적인 양육의 형태로 자원을 제공 하며, 자녀의 능력과 상태에 맞추어 조절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자율성을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기여 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안정 애착을 보이고 이러한 애착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것(Frodi, Bridges & Grolnick(1985)이나 부모가 자율성과 관계성 욕구를 지지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에게서 애착상(attachment figure)에 대한 작업 모델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Avery & Ryan, 1988), 그리고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하고,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청소년은 부모와 더 친밀하길 원하며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Ryan & Lynch, 1989) 등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La Guardia 등(2000)은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성인기 대인관계에서도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끌리고, 욕구가 만족되는 만큼 안녕감을 경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연구자들(La Guardia et al., 200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을 맺는 주요 대상인 어머니, 아버지, 애인,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 욕구 만족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한 애착과 안녕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욕구 만족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애인,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 아버지의 순으로 욕구 만족이 높았다. 또한 욕구 만족이 높은 대상은 관계 내에서 애착 안정성이 높았으며, 애착안정성

수준은 안녕감을 예측하였다. Wei, Shaffer, Young과 Zakalik(2006)는 성인 애착이 세 가지 욕구 만족을 예측하고, 세 가지 욕구 만족이 수치감, 우울 또는 외로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여, La Guardia 등(2000)과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 밖에 다른 연구들에서도 친구관계에서 주고받는 자율성 지지가 정신 건강을 예측하거나(Deci, La Guardia, Moller, Scheiner, & Ryan, 2006), 연인관계에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이 관계 기능과 안녕감, 갈등 후의 관계의 질을 잘 설명하는 등(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친밀한 관계 내의 만족과 이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가 잘 증명되고 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안녕감, 관계에서 겪는 만족감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 유지 및 개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측정이 필요하나, 아직 국내에는 이를 섬세하고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신뢰로운 도구가 제작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 La Guardia 등(2000)이 연인, 가까운 친구, 부모와의 관계 내에서의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였지만, 문항 수가 적어 한 구성 개념의 스펙트럼을 충분히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한소영과 신희천(2006, 2007)이 연인과 부부사이에서의 세 가지 욕구에 대한 가치관과 중요성을 측정하는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를 제작한 바 있지만 이 또한 한 개인이 커플 관계에서 세 가지 욕구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지 여부를 보는, 일종의 개인 가치관 측정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경험하고 있는 만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소영과 신희천(2006, 2007)의 연구는 욕구의

만족이 아닌 어떤 욕구가 중요한지에 대한 커플간의 견해차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욕구의 만족이란 그 관계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이고, 욕구의 중요성은 개인적으로 겪어온 과거 또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욕구의 현저성이나 강도차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특정 관계내의 욕구의 만족도와 욕구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제공이 병행되어야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몇몇 국내의 연구에서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사용된바 있으나, 이들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은 단일문항(김덕진, 양명환, 2006; 양명환, 김덕진, 2006) 또는 2-3문항으로 이루어졌거나(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지민준, 김건우, 2006), 연구자가 다른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제작된 측정도구를 일부 차용(김은영, 2007)하는 등 정확한 측정에서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명희(2008)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여 신뢰로운 측정도구 제작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희(2008)가 개발한 기본 심리 욕구 척도는 “일반적”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한 개인이 삶 전반에서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개인 간 차이 측정)은 알 수 있으나 한 개인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이나 다양한 관계에 따라 느낄 수 있는 각각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개인 내 차이 측정)은 불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연구의 초점이 교육장면과 같은 영역 또는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 제한되어 있어, 측정의 제한점과 더불어 욕구 만족의 개인 내 차이가 안녕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섬세하게 살펴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들은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 2002a, 2002b)을 바탕으로 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과 개인 내적 차이, 즉 관계에 따른 차이 측정이 가능한 도구를 개발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심리사회적인 면에서 한 개인의 안녕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 보고 부모에게 느끼는 욕구 만족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를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았으며, 타당화를 위해 자기효능감, 애착과의 상관을 보았다. 연구자들은 이전 연구의 주장과 같이(이명희, 2008; Deci & Ryan, 2000) 자기효능감은 유능감과 상관이 높고 애착척도는 세 가지 욕구 만족과 고르게 상관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개발된 문항을 사용하여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삶의 만족이나 정서 경험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이러한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예비문항선정

연구자들은 부모 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BPNS-parent-child relationship;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parent-child relationship)의 예비 문항을 다음의 과정을 거쳐 개발하였다. 우선, 한소영과 신희천(2006, 2007)

이 개발한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에 기반을 두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는 자기결정이론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자율성, 관계성, 그리고 유능성 욕구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있다. 한소영과 신희천(2006, 2007)은 La Guardia 등(2000)이 개발한 9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연구자들은 문항 수가 너무 적어 욕구의 구성개념차원들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자기결정이론의 문헌 검토(5문항)와 질적 연구를 통한 문항수집 과정(25문항)을 통해 총 39문항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평정절차를 거친 24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과 문항분석 과정 통해 최종 20문항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Deci와 Ryan(2000, 2002a, 2002b)의 주장한 바와 같이 기본 심리적 욕구의 3 요인 구조가 확인되어 높은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대상을 달리하여 신뢰도와 교차타당도를 확인하였다(한소영, 신희천 2007).

본 연구에서는 커플 기본 심리적 중요성 척도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욕구의 중요성과 만족도 모두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사한 문항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자들은 커플 기본 심리적 중요성 척도 20문항(관계성 7문항, 자율성 7문항, 유능성 6문항)의 기술을 “아버지(어머니)와 있을 때 ~라고 느껴진다.(~다).”로 수정하여 부모님과과의 관계 내에서 각각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변경된 문항들을 내용이 자연스럽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20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커플 기본 심리

적 중요성 척도(한소영, 신희천, 2006, 2007)가 기반을 두고 있는 La Guardia 등(2000)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는 같은 문항의 척도를 어머니, 아버지, 이성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룸메이트, 중요한 타인(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La Guardia 등(2000)의 연구에서 각 대상에 대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1, .94, .88, .85, .90, 그리고 .90이었으며, 확장적 요인 분석 결과 3요인 모델의 적합도가 RMSEA=.10, CFI=.96이었으며, χ^2 차이검증에서 1요인과 2요인 모델보다 3요인모델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Deci와 Ryan(2002)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 심리적 욕구는 인간이 진화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것이기 때문에 모든 대인관계나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이며,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 및 장면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개발된 바 있다(Deci, Ryan, Gagne, Leone, Usunov, & Kornazheva, 2001; La Guardia et al., 2000; Ilardi, Leone, Kasser, & Ryan, 1993; Kasser, Davey, & Ryan, 1992).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한소영, 신희천, 2006, 2007)는 La Guardia 등(2000)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커플을 대상으로 제작된 '중요성' 척도의 문항을 '욕구만족'으로, '커플 대상'을 '부모대상'으로 수정하여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선발된 문항을 각 대상(아버지, 어머니) 당 20문항으로 총 40문항의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각 문항은 응답자들이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상에서 반응하도록 리커트 척도로 만들어 졌다. 선발된 문항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소재 대학인 A대학, 지방광역시의 D대, 충청도 S대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수강생 총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배포한 340부의 설문지에서 수집된 자료는 277부였다. 이중 무성의 응답자 6명, 한부모 및 양부모 사망자 21명을 제외하고 총 25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무응답 1명(0.4%), 남자 101명(40.4%), 여자 148명(59.2%)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최하 18세에서 최고 46세(SD = 2.64)였으며, 평균 연령은 21.63세였다.

자기결정이론에 의해 본 척도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 구성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간의 상관을 가정하므로 사교 회전(Direct Oblimin)방식으로 추출요인을 3개로 제한하여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어머니 관계 측정 모두에서 관계성은 비교적 단일 개념으로 잘 구분이 되었으나, 자율성과 유능성 하위요인은 요인 간 문항이 뒤섞여 각각이 단일 차원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기본 심리적 욕구의 3가지 요인이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 2002a, 2002b)에 근거하고 있고,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3요인이 확인되어(La Guardia et al., 2000; Vlachopoulos & Michailidou, 2006; 이명희, 2008), 탐색적 요인 분석의 목적인 요인의 수 확인 및 요인의 해석 가능성(홍세희, 2007)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보고, 확장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요인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값과 Nonnormed fit index(NNFI)¹⁾,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Comparative

1) AMOS 결과에서는 TLI(Turker-Lewis Index)로 출력됨.

fit index(CFI)를 사용하였다. χ^2 값은 모형 적합도를 산출하는 기본적인 지수이나 표본크기에 상당히 민감하여, 표본이 커지면 영가설을 기각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0). 그러므로 χ^2 값과 더불어 홍세희(2007)의 제안에 따라 표본크기에 영향을 덜 받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해석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권장 적합도 기준에서 3가지 모두 충족하는 NNFI와 RMSEA,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나머지 두 가지 기준에는 부합하는 CFI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NNFI,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홍세희, 2000, 2007),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Brown & Cudeck, 1993; 홍세희, 2007).

우선 연구자들의 가설에 근거하여 제작된 20문항을 3요인 모델로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유능성 하위요인이 자율성과 관계성 하위요인 보다 문항수가 하나 부족한 것을 염두하여(성태제, 1999),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자율성과 관계성에서 측정모델의 계수가 가장 작은 문항을 각각 하나씩 제거하였다. 그런 후 하위요인 당 6문항씩, 총 18문항을 대상으로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론적 근거에 의한 3요인 모델과 1요인 모델을 비교한 결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증적 요인 분석 결과, 아버지-자녀 관계 척도의 경우, 3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2)=490.62$, NNFI=0.91, CFI=0.93, RMSEA=0.10, 비교모델인 1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5)=840.39$, NNFI=0.83, CFI=0.86이었으며, RMSEA=0.15로, 3요인 모델이 더 우수하였다. 3요인 모델과 1요인 모델이 적합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차이검

증을 검토한 결과 1요인 모델 - 3요인 모델은 $\chi^2 \text{dif}_{1\text{요인}-3\text{요인}}(3) = 349.77(p<.001)$ 로 χ^2 임계역이 .001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유도가 적은 3요인 모델이 채택되었다(홍세희, 2001).

어머니-자녀 관계 척도의 경우에도, 3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2)=412.80$, NNFI=0.90, CFI=0.93, RMSEA=0.09, 1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5)=919.59$, NNFI=0.76, CFI=0.81, RMSEA=0.15로, 3요인 모델이 더 우수하였다. 두 모델의 χ^2 차이검증 결과 1요인 모델 - 3요인 모델은 $\chi^2 \text{dif}_{1\text{요인}-3\text{요인}}(2) = 506.79(p<.001)$ 로 χ^2 임계역이 .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3요인 모델이 채택되었다(홍세희, 2001).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자녀 관계 척도의 경우 내적 합치도는 전체 문항이 .98, 자율성이 .97, 유능성이 .96, 관계성이 .95였다. 어머니-자녀 관계 척도의 경우 전체 문항이 .97, 자율성이 .90, 유능성이 .95, 관계성이 .95로, 부모-자녀 관계 모두에서 내적 합치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18문항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다.

대상

조사 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학인 A대학, 지방광역시의 D대, 충청도 S대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수강생 총 350명 대상으로 하였다. 배포한 350부의 설문지에서 수집된 자료는 290부였다. 이중 무성의 응답자 14명, 한부모 및 양부모 사망자 15명을 제외하고 총 261

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06명(40.6%), 여자 155명(59.4%)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최하 17세에서 최고 30세(SD = 2.43)였으며, 평균 연령은 21.18세였다.

절차

연구자들은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18문항과 타당화를 위한 척도들을 수업시간에 집단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지 작성에 대해 수업 점수에 대한 추가점수 또는 출석 점수를 부여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있어 순서효과를 최소화(counter balancing)하기 위해 척도의 순서를 달리한 두 가지 유형의 설문지로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척도 반응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예비문항 선별 과정에서 선정된 척도로,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개 욕구 만족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당 문항 수는 6개이다. 응답자들은 각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사이의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욕구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비문항 선별에서 내적합치도는 아버지-자녀 관계 척도는 전체 문항이 .98, 자율성이 .97, 유능성이 .96, 관계성이 .95, 어머니-자녀 관계 척도는 전체 문항이 .97, 자율성이 .90, 유능성이 .95, 관계성이 .95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척도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이 개발하고 옥정(1998)이 번안하여 한국화한 부모또래애착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IPPA-R)을 사용하였다. 이 중 또래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은 제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척도는 아버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각 25문항으로,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한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 중·고교생 493명을 대상으로 내적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부 애착 .93, 모 애착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부 애착 .94, 모 애착 .91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그리고 Rogers(1982)가 제작하고 홍혜영(1995)이 번안 및 한국화한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 SES)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23 문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아주 그렇다)사이의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한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문항의 내용상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이 되므로 자기결정 이론의 유능성 개념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하위척도만 사용하였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대학생 626명을 대상으로 내적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86, 전체 문항이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86, 전체문항이 .87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

주관적 안녕감은 Diener, Emmons, Larsen와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번역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와,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사용하고 설진미(2006)가 수정한 정서경험 빈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1점(매우 반대한다)에서 7점(매우 찬성한다) 사이의 Likert 척도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86이었다. 정서경험 빈도 척도는 정적 정서경험 빈도와 부적정서경험 빈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한 달 동안 얼마나 해당정서를 자주 경험했는지 1점(전혀 없다)에서 7점(항상) 사이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은 4개의 정서(정적 정서: 기쁨, 자부심, 애정, 만족감, 부적 정서: 공포, 화냄, 슬픔, 죄책감)를 포함한다. 설진미(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내적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척도는 .84, 정적 정서는 .85, 부적 정서는 .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적 정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4, 부적 정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69였다.

분석방법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가 예비문항 선발과정에서 나타난 3요인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지를 교차 타당화(cross validation) 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공준 타당도 검증을 위해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하위 요인과 부모 애착척도, 자기효능감척도 하위 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5.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결 과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26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척도점수를 기초로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요인구조 및 최종 문항 내용은 표 1에, 요인부하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증적 요인 분석 결과, 아버지-자녀 관계 척도의 경우, 3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2)=505.73$, NNFI=0.91, CFI=0.93, RMSEA=0.11, 2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4)=707.78$, NNFI=0.86, CFI=0.89이, RMSEA=0.13, 1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5)=948.66$, NNFI=0.80, CFI=0.85, RMSEA =0.15로 나타나, 3요인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자율성과 유능성 문항이 혼재되어 요인 간 뚜렷한 구분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참고하여, 대안적인 모델로 2요인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계성과 자율 및 유능성의 2요인 모델과 3요인 모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chi^2 dif_{2요인-3요인}(2) = 202.05$ ($p < .001$)로 3요인

표 1.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18문항의 요인 및 최종 문항 내용

요인	문항 내용
자율성	1. 나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내 의견을 말 할 수 있다. 2. 자유롭게 원래 내 모습대로 있을 수 있다고 느껴진다. 3. 내 영역이 유지된다고 느껴진다. 4. 내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껴진다. 5.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 6. 내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고 느껴진다.
유능성	1. 내가 매우 능력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진다. 2. 내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3. 무엇이든 잘 할 것 같은 자신감이 느껴진다. 4. 내가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5. 내 능력을 믿게 된다. 6. 내 존재감이 크게 느껴진다.
관계성	1. 사랑받고 관심 받는다고 느껴진다. 2. 가깝고 친밀하다고 느낀다. 3. 종종 우리 관계에서 유대감을 느낀다. 4. 깊은 교감이 느껴진다. 5. 나를 신경 쓰고 보살펴 준다고 느낀다. 6. 나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느낀다.

주 1. 모든 문항은 “아버지와 있을 때,” 또는 “어머니와 있을 때,”로 시작되나 위 표에서는 생략함.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우수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자녀 관계 척도의 경우, 3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2)=523.93$, NNFI=0.89, CFI=0.92, RMSEA=0.11, 1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5)=1207.50$, NNFI=0.70, CFI=0.77, RMSEA=0.18로 나타나, 3요인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대안적 모델로 2요인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계성과 자율성 및 유능성의 2요인 모델로 구성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34)=774.49$, NNFI=0.82, CFI=0.86, RMSEA=0.14였다. 3요인 모델과 2요인 모델의 χ^2 차이검증에

서, $\chi^2 dif_{2요인-3요인}(2) = 250.56(p<.001)$ 로 3요인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우수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나, 예비문항 선별과정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1요인, 2요인, 3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자녀 관계 척도의 경우 내적 합치도는 전체 문항이 .97, 자율성이 .93, 유능성이 .95, 관계성이 .95였다. 어머니-자녀 관계 척도의 경우 전체 문항이 .97, 자율성이 .90, 유능성이 .95, 관계성이 .94로, 부모-자녀 관계 모두에서 내적

표 2.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요인 부하량

관계	요인	측정변인 (문항번호)	비표준화계수	SE	t	표준화계수 (요인부하량)
아버지- 자녀관계	자율성	1	.96	.08	12.48	.74***
		2	1.04	.08	12.48	.75***
		3	1.07	.07	14.71	.87***
		4	1.24	.08	15.23	.90***
		5	1.17	.08	14.17	.84***
		6	1.12	.08	14.93	.88***
	유능성	1	.87	.05	16.26	.79***
		2	.91	.05	18.17	.84***
		3	1.05	.05	20.58	.90***
		4	.98	.05	20.88	.93***
		5	1.02	.05	22.38	.88***
		6	.98	.04	22.37	.87***
	관계성	1	.83	.04	18.74	.81***
		2	1.20	.06	18.74	.92***
		3	1.18	.06	18.75	.92***
		4	1.22	.06	19.04	.93***
		5	1.01	.06	15.93	.83***
		6	1.07	.07	16.25	.84***
어머니- 자녀관계	자율성	1	.88	.09	10.12	.69***
		2	1.13	.11	10.12	.67***
		3	1.21	.10	11.81	.79***
		4	1.33	.11	12.30	.82***
		5	1.47	.11	12.97	.87***
		6	1.04	.11	12.82	.86***
	유능성	1	1.00	.06	17.24	.84***
		2	1.06	.06	17.69	.86***
		3	1.08	.06	18.93	.89***
		4	1.04	.06	18.88	.89***
		5	1.07	.05	20.94	.94***
		6	.93	.05	20.94	.84***
관계성	1	.92	.06	16.98	.82***	
	2	1.05	.06	16.98	.87***	
	3	1.12	.06	18.43	.91***	
	4	1.14	.06	17.77	.89***	
	5	.93	.06	15.46	.81***	
	6	1.05	.07	15.27	.81***	

*** $p < .001(2\text{-tailed})$

표 3.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18문항의 1요인 모델, 2요인 모델 및 3요인 모델 적합도

관계	모델	$\chi^2(p)$	df	NNFI	CFI	RMSEA
아버지-자녀	1요인	948.66(.00)	135	.80	.85	.15
	2요인	707.78(.00)	134	.86	.89	.13
	3요인	508.73(.00)	132	.91	.93	.11
어머니-자녀	1요인	1207.50(.00)	135	.70	.77	.18
	2요인	774.49(.00)	134	.82	.86	.14
	3요인	523.93(.00)	132	.90	.92	.11

합치도가 우수하였다. 하위 요인 간 상관을 본 결과 아버지-자녀 관계 척도에서는 하위요인 간 상관이 모두 $r = .82$, 어머니-자녀 관계 척도에서는 $r = .73 \sim .78$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내적합치도와 하위요인 간 상관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공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척도와 부모애착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연구자들의 가설대로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하

위요인 중 유능성은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아버지: $.31, p < .01$, 어머니: $.34, p < .01$)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부모애착척도 하위요인과의 상관에서는 아버지-관계, 어머니-관계에서 모두 관계성이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대체적으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 고르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예언 타당도 확인을 위한 회귀 분석에 앞서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측정치인 삶의 만족 척도, 정적 정서빈도 척도, 부정 정서빈도 척도와의

표 4.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18문항의 하위 요인간 상관 및 신뢰도

관계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문항수	Cronbach- α
아버지-자녀	자율성	1			6	.93***
	유능성	.82***	1		6	.95***
	관계성	.82***	.82***	1	6	.95***
	전체 문항				18	.97***
어머니-자녀	자율성	1			6	.90***
	유능성	.78***	1		6	.95***
	관계성	.73***	.73***	1	6	.94***
	전체 문항				18	.97***

*** $p < .01$ (2-tailed)

표 5.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하위 요인과 자기효능감 및 애착 척도 하위 요인간의 상관

		아버지-자녀			어머니-자녀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남자	일반적 자기효능감	.18	.21*	.28**	.22*	.30**	.34***
	신뢰감 ²⁾	.66***	.72***	.61***	.43***	.55***	.46***
	의사소통	.67***	.72***	.66***	.33**	.41***	.44***
	소외감 ³⁾	.60***	.63***	.59***	.25**	.43***	.24*
여자	일반적 자기효능감	.28***	.24**	.32***	.28***	.25**	.34***
	신뢰감	.69***	.78***	.72***	.69***	.75***	.66***
	의사소통	.63***	.68***	.64***	.58***	.63***	.61***
	소외감	.61***	.66***	.59***	.56***	.61***	.55***
전체	일반적 자기효능감	.24***	.23***	.31***	.25***	.26***	.34***
	신뢰감	.68***	.76***	.68***	.58***	.68***	.60***
	의사소통	.64***	.69***	.65***	.50***	.56***	.56***
	소외감	.61***	.65***	.58***	.45***	.55***	.44***

*** $p < .01$, ** $p < .01$, * $p < .05$ (2-tailed)

상관을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과의 상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버지-자녀 관계의 욕구가 어머니-자녀 관계의 욕구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자녀 관계 욕구와 삶의 만족과의 상관은 $r = .38 \sim .45$ 사이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자녀 관계에서의 유능성($r = .45, p < .01$)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아버지-자녀 관계에서의 관계성과 자율성($r = .38, p < .01$) 순이었다. 어머니-자녀 관계 욕구와 삶의 만족과의 상관에서는 관계성($r = .17, p < .01$)과 유능성($r = .27, p < .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율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자녀 욕구와 정적 정서와의 상관에서는 $r = .27 \sim .33$ 사이로 고르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자녀 관계 욕구와 정적 정서와의 상관에서는 관계성($r = .26, p < .01$)과 유능성($r = .23, p < .01$)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삶의 만족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적정서와의 상관에서는 아버지-자녀 관계 욕구들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어머니-자녀 관계에서는 $r = -.14 \sim -.24$ 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표 6).

2)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은 부모애착척도(IPPAR)의 하위 요인으로, 아버지 애착점수와 어머니

표 6.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하위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척도와의 상관

		아버지-자녀			어머니-자녀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남자	삶의만족	.24*	.32**	.38***	.21*	.26**	.34***
	정적정서	.27**	.36***	.28**	.16	.32**	.24*
	부적정서	-.01	-.09	-.09	-.10	-.20*	-.22*
여자	삶의만족	.47***	.41***	.48***	.04	.13	.23**
	정적정서	.28**	.30***	.36***	.07	.24**	.23**
	부적정서	-.05	-.07	-.06	-.16*	-.26**	-.16*
전체	삶의만족	.38***	.38***	.45***	.10	.17**	.27***
	정적정서	.27***	.33***	.33***	.10	.26***	.23***
	부적정서	-.05	-.10	-.09	-.14*	-.24***	-.18**

*** $p < .01$, ** $p < .01$, * $p < .05$ (2-tailed)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단 삶의 만족과의 상관에서 남자는 아버지-자녀 관계 욕구와 어머니-자녀 관계 욕구가 비교적 고르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여자는 아버지-자녀 관계 욕구가 어머니-자녀 관계 욕구와의 상관에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자녀 관계 욕구는 $r = .41 \sim .48$ 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자녀 관계 욕구에서는 자율성과 관계성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고, 유능성($r = .23, p < .01$)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여성에 있어서 삶의 만족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 만

족 정도가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하위 요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독립변인인 욕구 만족 요인 간의 상관이 높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으나,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실시에 있어 김은영(2007)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왔던 점, 한소영과 신희천(2007)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더 중요하게 지각한 점 등을 참고하여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자의 경우 아버지-자녀 관계에서의 유능성이 삶의 만족감 전체 변량의 12%를 유의미

애착점수가 각각 산출됨. 여기서 상관점수는 아버지-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점수의 경우 아버지 애착점수와, 어머니-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점수의 경우 어머니 애착점수와 상관을 나타내는 것임.

3) 여기서 소외감 점수는 역코딩된 것으로, 점수가 클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것을 의미함.

표 7.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하위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 결과

성별	예측변인	B	표준오차	t	β
남자	부유능성 ⁴⁾	.05	.02	3.72***	.35
	종속변인: 삶의 만족, $R^2 = .12$, $Adj \Delta R^2 = .11$				
	부관계성	.04	.01	.285**	.29
	모관계성	.05	.02	.204*	.02
	종속변인: 정적 정서, $R^2 = .17$, $Adj \Delta R^2 = .16$				
	모유능성	-.04	.01	-2.77**	-.27
여자	부유능성	.07	.01	6.44***	.47
	종속변인: 삶의 만족, $R^2 = .22$, $Adj \Delta R^2 = .22$				
	부유능성	.04	.01	4.66***	.36
	종속변인: 정적 정서, $R^2 = .13$, $Adj \Delta R^2 = .13$				
	모관계성	-.04	.01	-3.19**	-.25
	종속변인: 부적 정서, $R^2 = .06$, $Adj \Delta R^2 = .06$				

*** $p < .001$, ** $p < .01$, * $p < .05$ (2-tailed)

하게 설명($F=12.77$,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독립변인인 아버지-자녀 관계의 자율성과 관계성, 어머니-자녀 관계의 자율성, 유능성은 유의한 추가적 설명변량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적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보았을 때, 처음 투입된 아버지-자녀 관계성이 정적 정서 전체 변량의 14%를 설명하였고, 어머니-자녀 관계성이 정적 정서 변량의 3%를 추가적으로 설명($F=4.00$, $p < .05$)하였다. 부적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유능성이 부적 정서 전체 변량의 7%를 설명하였으며($F=7.65$, $p < .01$) 나머지 독립 변인들은 모두 추가적 설명변인에서 제외되었다.

여자의 경우 아버지-자녀 관계에서의 유능성이 삶의 만족감 전체 변량의 22%를 유의미

하게 설명($F=12.77$,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독립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추가적 설명변량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적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자녀 유능성이 정적 정서 전체 변량의 13%를 설명하였고, 부적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관계성이 부적 정서 전체 변량의 6%를 설명하였으며($F=7.65$, $p < .01$) 나머지 독립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추가적 설명변량이 나타나지 않아 모델에서 제외되었다.

요약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삶의 만족에는

4) 표 7에서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은 모자율성, 모관계성, 모유능성으로, 아버지-자녀 관계에서의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은 부자율성, 부관계성, 부유능성으로 표시하였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유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정적 정서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관계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 정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유능성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여자의 경우 정적 정서는 삶의 만족과 같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유능성이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부적 정서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관계성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부적정서는 남녀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 만족 정도가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 2002a, 2002b)에서 인간 성장과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 만족되는가를 측정하는,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척도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주관적 안녕감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한소영과 신희천(2006, 2007)의 연구에서 개발 및 타당화된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선정, 확장적 요인분석과 자기효능감 척도 애착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족

과 정적 정서는 비교적 세 가지 욕구 만족과 고르게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적 정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 만족에서만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 아버지-자녀 관계에서의 유능성이 삶의 만족감을,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관계성이 정적 정서를,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유능성이 부적 정서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아버지-자녀 관계에서의 유능성이 삶의 만족감과 정적 정서를,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관계성이 부적 정서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는 3요인으로 구성된 도구로서 신뢰도가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어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공존타당도를 보였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사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예측력을 살펴보았을 때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예비문항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확장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3요인 모델을 지지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가 연구자들의 가설과는 달리 명확한 3요인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자율성과 유능성에서 요인구조가 뒤섞이는 양상을 보였다. 이명희(2008)의 한국형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개발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 바 있다. 이명희(2008)는 조사대상에 대한 일대일 면접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

들은 유능감과 자율성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지각하면서도, 자율적인 것이 유능한 것은 아니나, 유능하다면 자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명희(2008)는 이러한 결과가 Deci와 Ryan(2000)의 주장과 같이 유능감에 앞서 자율성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결론짓고 자율성과 유능성을 여전히 구분되는 구성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탐색적 요인 분석의 혼재된 결과는 위와 같이 한국인의 특수성과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 2002a, 2002b; Ryan, 1996)에 근거하고 있는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과의 높은 관련성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간의 상관이 높은 것 또한 같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1 요인이나 2 요인 보다 3 요인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함을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존 타당도 검증에서 세 가지 욕구 중 유능성 만족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으나 .28 ~ .34로 크게 높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유능감의 경우, 애착척도의 하위척도인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상관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자율성, 관계성과 유사하게 애착척도와의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 모두 애착과 밀접한 관련(La Guardia 등, 2000)이 있어서 일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구성개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효능감의 지각’이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유능감이 측정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느끼는 유능감의 만족’ 또는 ‘지각된 부모의 유능감 지지’와는 다른 구성개념이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 삶의 만족과 정적 정서와 같은 긍정적이며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남녀 모두에 있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의 만족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의 만족이 더 큰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 정서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와는 관련성이 매우 낮거나 유의한 상관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와의 관련성 또는 영향력만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만족이 더 큰 관련성을 보인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만족이 더 크게 나타났던 La Guardia 등(2000)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장미경(2001)은 부모의 애착과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연구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긍정적·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에 더 영향력이 큰 것을 발견하고, 애착이론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청소년의 행동이나 지각에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유숙(2006)은 1960년대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를 보면 청소년 문제가 “어머니의 치맛 바람”이나 “희박한 아버지상”과 많이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를 통합해서 해석해 본다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정신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가 더욱 강렬하게 진행되는(Shultheis & Blustein, 1994) 청소년기에는 기존의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되지 못하여 욕구만족의 질이 감소되면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영향을 보완하거나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주관적 안녕감이나 정신건강에 모두 중요하고(Deci & Ryan, 2000), 세 가지 욕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거나(Sheldon & Niemiec, 2006), 또는 자율성을 지지받는 것이 관계성과 유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되는 욕구이며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했던 것(Deci, et al., 2006; Ryan, 2005)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상관과 그 영향력에서 자율성보다는 유능성과 관계성의 요인이 삶의 만족과 정적 정서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에 원인을 생각해본다면 첫째,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문화와는 달리 부모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하는 한국문화(장성숙, 2003)에서는 자율성보다는 관계성이 정신건강에 더 강력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Bao와 Lam(2008)은 중국 아동의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과 가깝게 여기는 아동은 선택의 자유의 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중국 아동은 자신이 신뢰하고 가깝게 여기는 어른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 대신 선택하는 것을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여기지 않으며 이러한 관계성의 강력한 효과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 속해있는 한국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Sheldon 등(2001)의 비교 문화 연구에서 미국인의 경우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경험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응답하며, 정적 정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이 자율성 욕구 충족인 반면, 한국인의 경우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경험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응답했으며, 정적 정서와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유능성 욕구 충족이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소영과 신희천(2007)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경우 세 가지 욕구 중 관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유능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 역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학업적 성취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문화에서, 자신감과 유능감을 지지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 집단의 경우,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어학연수, 학점 및 자격증 취득 등 성취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의 유능감 지지 지각과 만족의 영향이 삶의 만족에 더욱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덕진과 양명환(2006)의 교양체육 수강자 연구에서 세 가지 욕구 중, 유능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동기와의 상관이 가장 높았는데, 이 또한 성취가 중요시 여겨지는 맥락인 대학 장면에서 유능감 만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세 가지 욕구 만족 요인간의 상관이 높아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맥락을 달리하는 추가적

인 후속연구나 비교문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세 가지 욕구 만족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정적정서에 대한 관계성의 만족이 가장 큰 요인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유능성 만족이 정적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적정서에서는 이러한 성별 패턴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남자의 경우 유능성이, 여성의 경우에는 관계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는 결핍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정적정서를 경험하고 마땅히 충족되어야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부적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부모에게 느끼는 애착이 낮으며(옥정, 1998), 대인관계에서 여성에 비해 정서적 지지나 긍정적인 교류 경험이 적기 때문에(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남성들은 결핍된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기쁨, 자부심, 애정, 만족감 같은 정적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높은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여성들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능성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정적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본 자료의 변인 간 상관의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성차에 대한 이러한 추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부 대학생에 한정하고 있어서, 연구에서 강조하는 특정 맥락에서 욕구 만족의 효과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관계나 맥락이 욕구 만족에 중요하고 이것이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면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아동기나, 또래가 중요해지는 청소년기, 혹은 연인사이, 직업장면 등 다른 맥락에서는 세 가지 욕구 만족의 효

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의 발전 및 상담치료에서 함의점을 갖는다. 기존 국내연구에서 자기결정이론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김덕진, 양명환, 2006; 김은영, 2007;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양명환, 김덕진, 2006; 지민준, 김건우, 2006)는 실시된 바 있으나, 이것이 관계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부모와의 관계라는 특정맥락에서 충족되는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내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이명희, 2008)와는 다르고,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만족을 따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욕구만족의 맥락적 효과를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어느 맥락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이후 친밀감을 느낄 수는 다른 대상(예, 연인관계, 친구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으로 확장·개발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른 부모자녀 관련 측정도구(권순명, 1993; 김혜운, 이진순, 2006; 문경주, 오경자, 2002; 정연옥, 2005)과 차별성과 이점을 갖는다.

아동에게 있어 친구에게서 느끼는 세 가지 욕구의 만족보다 부모에게서 느끼는 세 가지 욕구의 만족이 이후 우울,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를 예측하거나(Veronneau, Koestenr, & Abela, 2005)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감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전신현, 1996)으로 나타나는 등, 여러 연구에서 부모로부터의 욕구 충족이 삶의 만족이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임을 지지하고 있다. 아동기 초기 때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 또는 애착이 이후 성인기의 대인관계의 바탕이 됨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의 욕구 만족을 살펴보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자율성, 유능성을 지지하고, 자녀와의 친밀하고 온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본 연구 결과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에 대한 심리학적·교육서비스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 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구인 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덕진, 양명환 (2006). 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적인 욕구, 동기유형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1), 25-45.
- 김은영 (2007).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79-1100.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김혜은,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21-40.
- 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471-490.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설진미 (2006). 대학생의 지속적인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태제 (1998).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양명환, 김덕진 (2006). 마라톤대회 참가자의 기본적인 욕구, 동기, 심리적 웰빙 및 행동의도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 편, 45(4), 251-262.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 (2001).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회상, 현재의 애착유형 및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1), 117-133.
-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47-160.
- 전신현 (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청소년 연구, 25(4), 63-82.
- 정연옥 (2005). 성인기 애착유형, 부정적 인지 왜곡 및 우울수준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 지: 일반, 24(1), 167-184.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8집, 집문당.
- 지민준, 김건우 (2007). 자기결정성 구성요인들의 성별에 따른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평균과 구조관계비교-고등학교 농구 체육특기자 남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559-571.
- 한소영, 신희천 (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 한소영, 신희천 (200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다집단 요인분석과 잠재평균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47-465.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세희 (2001). 구조 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경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 Greenberg, M.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 - 454.
- Avery, R. R., & Ryan, R. M. (1988). Object relations and ego development: Comparison and correlate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56(3), 547-569.
- Baard, P. P., Deci, E. L., & Ryan, R. M. (2004).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 motivational basis of performance and well-being in two work setting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10), 2045-2068.
- Bao, X., & Lam, S. (2008). Who makes the choice? Rethinking the role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hinese children's motivation. *Child Development*, 79(2), 269-283.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Chirkov, V. I., & Ryan, R. M. (2001). Parent and teacher autonomy-support in Russian and U. S. Adolescents: Common effects on well-being and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2(5), 618-635.
- Chirkov, V., Ryan, R. M., & Willness, C. (2005). Cultural context and psychological needs in Canada and Brazil: Testing a self-determination approach to the internalization of cultural practices, identity, and well-being.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23-443.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2a).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2b).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 future direction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p.431-441).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Ryan, R. M., Gagné, M., Leone, D. R., Usunov, J., & Kornazheva, B. P. (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s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930-342.
- Deci, E. L., & Vansteenkiste, M. (2004).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basic need satisfacti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in positive psychology. *Ricerche di Psicologia, 27*(1), 17-34.
- Deci, E. L., La Guardia, J. G., Moller, A. C., Scheiner, M. J., & Ryan, R. M. (2006). On the benefits of giving as well as receiving autonomy support: Mutuality in close friend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313-327.
- Deci, E. L., Ryan, R. M., Gagné, M., Leone, D. R., Usunov, J., & Kornazheva, B. P. (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s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8), 930-942.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ilak, V., & Sheldon, K. (2003). Student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college teacher-course evaluations. *Educational Psychology, 23*(3), 235-247.
- Frodi, A., Bridges, L., & Grolnick, W. S. (1985). Correlates of mastery-related behavior: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infants in their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56*(5), 1291-1298.
- Gagne, M., Ryan, R. M., & Bargmann, K. (2003). Aut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5*(4), 372-390.
- Ilardi, B. C., Leone, D., Kasser, R., & Ryan, R. M. (1993). Employee and supervisor ratings of motivation: Main effects and discrepancie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adjustment in a factory sett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21), 1789-1805.
- Kasser, T., Davey, J., & Ryan, R. M. (1992). Motivation, dependability, and employee-supervisor discrepancies in psychiatric vocational rehabilitation settings. *Rehabilitation Psychology, 37*, 175-187.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am, C. F., & Gurland, S. T. (2008). Self-determined work motivation predicts job outcomes, but what predicts self-determined work moti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4), 1109-1115.
- Meyer, B., Enstrom, M. K., Harstveit, M., Bowles, D. P., & Beevers, C. G. (2007). Happiness and despair on the catwalk: Needs

- Satisfaction, well-being, and personality adjustment among fashion mode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1), 2-17.
- Niemiec, C. P., Lynch, M. F., Vansteenkiste, M., Bernstein, J., Deci, E. L., & Ryan, R. M. (2006).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utonomous self-regulation for colleg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social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5), 761-775.
- Patrick, H., Knee, C. 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434-457.
- Ratelle, C. F., Larose, S., Guay, F., & Senecal, C. (2005). Perception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upport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persistence in a science curriculum.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86-293.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3), 397-427.
- Ryan, R. M. (2005). The developmental line of autonomy in the etiology, dynamics,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987-1006.
- Ryan, R. M., Frederick, C. M., Lepes, D., Rubio, N., & Sheldon, K. M. (1997). Intrinsic motivation and exercise adh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8(4), 335-354.
- Ryan, R. M., La Guardia, J. G., Solky-Butzel, J., Chirkov, V., & Kim, Y. (2005). On the interpersonal regulation of emotions: Emotional reliance across gender, relationships, and culture. *Personal Relationships*, 12(1), 146-163.
- Ryan, R. M., & Lynch, J.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3), 340-356.
- Ryan, R. M., Rigby, C. S., & Przybylski, A. (2006). The motivation pull of video games: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Motivation and Emotion*, 30, 347-365.
- Sheldon, K. M., & Krieger, L. S. (2007). Understanding the negative effects of legal education on law students: A longitudinal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6), 883-897.
- Sheldon, K. M., Elliot, A. J., Kim, Y., & Kasser, T. (2001). What's satisfying about satisfying events? Testing 10 candidate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325-339.
- Sheldon, K. M., Ryan, R. M., & Reis, H. T. (1996).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d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2), 1270-1279.
- Sheldon, K., & Niemiec, C. (2006). It's not just the amount that counts: Balanced need satisfaction also affect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2), 331-341.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ing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ng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44-646.
- Vansteenkiste, M., Lens, W., Soenens, B., & Luyckx, K. (2006). Autonomy and relatedness among Chinese sojourners and applicants: Conflictual or independent predictors of well-being and adjustment? *Motivation and Emotion, 30*, 273-282.
- Vansteenkiste, M., Neyrinck, B., Niemiec, C. P., Soenens, B., De Witte, H., & Van den Broeck, A. (2007). On the relations among work value orientation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job outcomes: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0*(2), 251-277.
- Veronneau, M-H., Koestenr, R. R., & Abela, J. R. Z. (2005).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nd adolescents: An applic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2), 280-292.
- Vlachopoulos, S. P., & Michailidou, S. (2006).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exercise: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exercise scale.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 10*(3), 179-201.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원 고 접 수 일 : 2008. 11. 8

수정원고접수일 : 2009. 3. 28

게 재 결 정 일 : 2009. 5. 16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ubjective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s

Soyoung Han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BPN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needs satisfaction on feelings of subjective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analysis indicated 3 factor-structure of the scale: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nd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scale was supported by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needs satisfaction in father-child relationships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emotions, and needs satisfaction in mother-child relationships was that of negative emotions. Theoretical and therapeutic implications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Parent-Child Relationships, Subjective Well-Being*